

을 파고 요동 만리를 순식간 도착하야 초름왕을 다 시 보고 심중의 천만사를 설화하게
 함 소셔하며 금척을 들 어 옥문을 한번 치니 신동호도 다 조화여 옥문이 자벽이라 한 옥
 이가 준화에 수단이 장황한 디 언연하야 마참잠이 깊히 들 어 난 지라 초름왕비와 호열부
 인이 금척을 들 어 집을 향하니 금척에 조화또한 신의 하다 순식간에 깨가하니 이씨 벽난
 이강 누인 호열부인을 창황이 전히 에 보니 고근심이 죽지 안이 하더니 노야 부는 북방
 에 원찬하고 두부인은 하옥하고 불원간 죽인 다 하난 소문을 들 으미분을 비감이 교집하
 야 경황도 로중이더니 두부인이 야심오경에 자최읍시 홀연이 방중에 들 어 오난 지라 진
 소위 귀신을 난척이라 주저하하하니 호열부인이 급한 소리로 왈 낭은 의심치마소서 사
 세 급하니 밤비헿장을 수습하야 성명을 도모하하 며 일변 방문이 열니며 벽난의 손을
 잡어 숨인 이 금척을 희롱하야 남편을 바라며 헿하니 월락승회하고 원누 학비한 데 헿색
 은 초솔하나 그 조화난진 실로던 신이로다 평명에 요동에 도착하야 초름왕 저소를 차질
 시지 광인 소하야 자세히 처근 처 못 할 지라 엇더한 희발노인을 만나 초름왕 기신 곳을 물
 으니 그 노인이 숨인의 헿색을 자서히 살피어 보며 눈물이 흘러 의상을 적시며 말을 자세
 히 못하 고 다 만 손으로 불으며 길을 인도하야 수리를 헿하야 수림간 숨간 초옥으로 들 어
 가자 하거날 그 노인을 싸라 가보니 수목은 참치하 고 시문은 적막하야 인적이 고요하 며
 청방이 락운을 저 손을 맞난 지라 방중에 들 어 가보니 갈 건야 복은 벽상에 걸니 여잇고

랍상에 숨척 금빛기 노이 여잇스며 만권서척이 서상에 가득이 잇시니 산중 처사에 집인
 줄알너라 마암에 깃뿔을 이기지 못하든 차노인이 좌를 주워 안지라 하거날 시좌수경에
 노인 왈 낭 등이 무슴일로 초름왕에 처소를 못나 노나 자 숨인이 주저하하하 다 가 호열부
 인이 공손이 디 왈 선성이 이갓치하 문하시니 웃지괴 망하리 요비 첩삼인은 초름왕부하
 에 잇셔 조석으로 피시고 잇사 압더니 국가에 일이 잇사와 북병이 요란하 고 남년이 침
 노하노지라 우리 초름왕 폐압서련명을 밧자와 유현디 여를 반일에 소멸하 고 연국을
 처월여 지간에 항복 밧고 아즉 반사치 못하야 사압더니 흥진비리 난고 금상사라 조정에
 소인이 잇셔 참소가 일헿이라 천만몽의에 요동 만리에 원찬하시미 그 참혹 원역은 일구
 난 설이 어니와 고언에 헿앗시 되화불단헿이라 고 좌편에 안지신 우리 초름왕비 강씨부
 인과 우편에 안지신 벽난 유낭조와 소첩 흥년 에 몸 에 화익이 당도하야 신명이 경각에 잇
 사와 심사 증히 망년하 압더니련우신 조하와 달신 망명하야 이곳에 당도하야는 갈바를
 아 자 못하 압더니 다헿이 선성을 만나오니 감격한마 암칭양읍나이다 노인이 총지양구
 에 왈 낭 등에 말을 들 으미가 이 참혹한 지라 웃지하 면 조흔도 리잇스리요이 요동은 디방
 이 만 리요인가 회소하야 주접할바를 아 지 못하 며 방금 초름왕 처소가 어나 곳인지 아 지
 못하니 그역난 처요이 디방은 자고로도적이 터치하야 헿인 키기에 곤난이 무수하 지라
 향시 삼위 낭조가 섬々 약진로 웃지 써 방헿읍시 어나 곳을 향하리요 아직 니 집에 잇셔사

방담지한연후에발행함이조홀가호노라낭삼인이암심탁지호미사리당연호고식견
 이유리한지라일시의일어나션성제지비호고관후호신덕과고상호신지식을절々이
 하례호니노인이또호길버호야부녀에정의를밧고지니니아직은낭삼인에신상이평
 안호나항상초를왕을성각호미우심이충々호야혼적음난눈물이시々씩々로쓰다저
 요동만리에강산초목을적실듯하더라

湖 호
 上 상
 夢 몽

下 하

설청운산북풍한이라북방에삭풍은밍열호고빅설은분비호야만학천봉이빅옥병을
 들너난듯수영이참치호야날그림자를가리여흔들々々호며눈방을이사방으로날이
 니엄동치운날이좀더호타이갓치치운동일을당호야난분벽사창에포식난의로지
 나도한기가읍지못호려든하물며노야부々칠십노옹이북방를차자가다가로상에
 절호야더니볼의빅발노승이후포장숨을떨치고श्यक를쫓쳐오다가참호함을보고
 자비의마암을가져일변슈죽과혈릭을만지여보더니품속으로환약두기를너여부々
 입에너으며사디를쥬물으니얼마쯤잇다가한숨한번를쉬며도라누으니죽금잇다가
 눈을떠정신을차려노승을보고왈티사느웃지씨우리부々에죽음을설중로상에구호
 야쥬노감사무디오나이다방이어티잇고노승이합장비례호야왈소승은령은사에잇
 사압더니지나간봄에빅운사로와의탁호고잇난덕근쳐의불사름이잇셔갓다오난길
 이압더니로상에상공기절하심을보오미그저갈슈읍사와구안호음이요디방은기봉
 이라호나이다보은죽상공에복색이향리복식은안니요경사에기신것갓사은티무습
 일로하쳐에가시다가설중에이갓치로상에기절호얏나잇가노야심신을슈습호야노

승에 언행동명을 보니 속승이 아니요 산중도승이 분명하니라 또 한 명은 사에 잇섯다 하
 미고 향을 생각하난 회포깁가 일층이라 비참한마암이 가득하야 말을 이루지 못하니 노
 승이 보고 또 한 비참한마암이 잇셔 글이 하얏던지 그 꼭 절은 아지 못하 고 답하야 지
 축하야 물을 싸름이라 노야속마암으로 생각하미우리 부사로상에 죽게되얏따가저노
 승에 심를 입어살아난지라 진명을 말하지 아니하면 되리여 의리 아니라 하 고 전후발을
 일장설화하니 노승이 다시 저비왈소승은 달은 사람이 아니라 령은 사에 잇섯 법당중
 슈하기 위하야 석옥동강상공께서 만금권선하야 주시미 감사 무디하오며 초람왕은 누
 々히 퇴압사오나 노야왕은 오날々츠음 퇴오나 듯기예 참혹하온지라 이갓튼일이 어디
 잇시리잇가 만고역적이 비일비지이오나 남리양적에 디역무도 하음은 런하에 한놈이
 요초람왕에 충죽증디하심은 만민이다야 난바라 청련에 일월이 박난날은 노야 부々환
 향령커하오며 초람왕부의 입훈지츄라 부디과도 허분울치마시고 안심하사 천금갓튼
 보체를 보중하사 후일을 기달이소서 노야들이 미월당티사가 분명하며 가장 말리유리
 한지라 다시 문왈웃지하면 도흐리요티사가 갓치헤고하니 우리 부々년금철십이라 선
 망후실하야 웃지두셔가 잇시리요하며 눈물리비오듯하난지라 월당티사 보미가 공하
 야공손이 고왈노야과도이근심치마시고 소승으로 한가지 비운사로가사아직은 신하
 시고기시다가 후일을 보소서하니 노야 부々티사에 구제하난은 덕를 사례하며 하릴음

서싸라 비운사에 당도하니 산은 깎피적막하 고 물은 흘러 잔々한데 슈목은 참치하야 설
 화를 띄여 잇고 비운은 담々하야 암자를 둘러 잇씨니 런하 명찰리 분명하니라 정결소외
 한 암자로인도하야 들어가미셔로다 파를 뉘오며 셔척를 일々이 주니 유々한세월을
 비운중에 보니 더라 남관목과 리관원이 강부인 흥년을 옥중에 일코이 미한옥니 만중형
 을주고 초람왕에 집을 소화하며 일변요동으로 가난길을 막아 강부인 흥년을 잡으라
 하나발서 강부인 등승인은 요동에 당도하야 처사에 집의편안이 광음을 보니니 차질슈
 잇시리요 할일읍셔 찾지 못하 고 흥계를 도모하야 근문제를 리청 밍봉으로 하야 금니치
 고 죽일 황제위의나 가 비관을 조회바든니 가련하 다 디명쥬사 금일썰이로다 또 한군사
 오십만을 조발하야 리청으로 원용을 봉하 고 밍봉으로 선봉를 비하 고 춘화로 군중참모
 사를 삼아 년국을 처년왕를 배히고 하신에 부하장을 일々이 잡아 죽이라 하 고 일변자리
 를 요동에 보너 하신을 읍셔하야 후일근심을 쓴코 장구히 현하를 다사리여 부커를 누
 리고자하니 역적에 피게가 장괴묘하도다 웃지하면 사름에 마암이 갓트리요 초람왕
 하신과 난무승원슈가 잇셔 々이 갓치하리요 고언에 하야 씨되살인자사 하 고 폐현잔
 그명이 불양하 고 역련잔망이라 하야 씨니 웃지장구히 살기를 바라리요 잇셔 초람왕
 하신이 요동에 잇셔 경사소식을 듯고 셔련를 바라 통곡지비하며 제장등으로 한가지의
 룬하니 가 돌쇠고 왈 남적이 갓치 무도극심하니 안져보지 못할지라 디왕이 아니면 누

가잇서 명실을 회복하리요 더왕은 의병을 발하야 년국에 기별하야 년군를 발하코 면저
 민심을 일치마소서 갑용 등 제장이 이를 갈며 고왈 남쪽에 피기를 먹지아니하 면던하
 에서 지아니하리라 하 며 갈을 어루만지 여 탄식하 니 초람왕이 일변 년국에 기별하야 군
 사을 모집하코 포고던 하야 의병를 리의키니 민심이 즉던심이라 사방에 군사 구름모
 이듯 하야 남경을 향하 니 티청 민봉등이 년국치기 난고사 하코 일변 남쪽에 계동하코
 사방으로 의병를 철시의병이 비록만타하 나 룡등 항고에 유라 웃지 티청 맹봉의 날닐갈
 을 당하 리요 도처에 불상한 립성의 죽음이 산갓더라 맹봉 티청 양장이 수월 지니에 의병
 을 처파하코 년국을 철석이 석연왕이 초람왕의 기별을 바다 제장등으로 한가지 상의하
 고 군사를 발하야 티청 맹봉을 막을시 티청 맹봉 양장이 급히 들어가 지못하코 남쪽에
 주달하니 남적이 듯고 티경하야 승상 관원을 보고 상의하야 왈 하신을 지금 싸지두어이
 갓든 티화가 싱하 니 웃지 하면 조호리요 한디 관원 왈 황상은 웃지 구싱 유취지아를 근
 심하시나 의가 하신이 비록 지모가 잇고 가돌 쇠용역이 잇다 하나 웃지 원용문방 티청과
 선봉도 맹봉과 군중참모사 오춘화를 당하 리요 조금도 근심치마시 압소서 남적이 듯고
 티희하야 패염치아니하코 육산포림에 미인수 톱으로 질기여 날을 보니 니 아직은 부키
 도극진하 며 연락에 갑뎡도 지극하 며 마암이 편안하야 일신에 아무 근심이 읊더라 이석
 초람왕이 제장으로 더부러 군사를 발하야 년국을 바라코 항하더라 티청 맹봉 양장이 년

병으로 교전할시 년왕이 친이 군사를 거나 리고 막으미 불과 수일지간에 당치 못하야 년
 경에 들어가 성문을 구지 닷고 상전치아니 하니 맹봉 티청이 무수히 도전하며 절육하나
 종시 교전치아니하코 초람왕오기 만기 달나 난지라 티청이 하릴 읊서 맹봉으로 하야 금
 초람왕오난 길을 막으라 하코 군사를 난누어 막을시 초람왕이 수십일지간에 민심
 을 수습하야 군사를 모집하며 년경을 향하야 운랍현지경에 들어가니 군사 계우오천이
 라오천병을 거나 리고 가돌 쇠로 선봉을 삼고 갑용으로 표기 장군을 삼아 군사 리천오백
 을 난우어 면저 형주를 처파하코 경사로 되이라 하코 급히 연경에 들어갈시 도맹봉이 너
 달아 길을 막으며 마상에 넘히 안져오여 왈 하신은들으라 네나의 청춘이라 아무리지
 이 읊다 하 나 웃지던 의를 아지 못하코 공년이 민심을 요란하야 우리던근심하 시게 하
 노바라던 티부지랍시 혈기를 밋지 말고던 의를 좃쳐 항복하 면 부귀를 누리이라 하 며 말
 리가 장유리 할듯 위풍이 능능한지라 초람왕이 듯고로 기등하야 티절왈 도맹봉은들
 으라 아무리 북방에 준々 무식케 자라나시나 히 필남쪽에 신하되기가 원인야 티명던디
 에이갓치 무도극심한 말리어 티잇스 리요 되리여 연의를 아지 못한다 하 니가 위한 심호
 말리로 다우으로 명던이 기시고 또한 명티도 황제에 신령이 하림여 축하시나 지라 아즉
 은성명이부지하야 의기가 양々 하 나 너의 옥장을 바드라 하코 급히 옥장을 들어사방를
 가라쳐 돌쇠 천등양인잡더시던지니 옥장이 화하야 청용이되야 달아드니 맹봉이 비록

천인부당지역이잇시나웃지옥장에도화를당호리요그제야옥장에도화를탄복호며
 갈로청용를막으며말을돌여번진을바라고달아나난지라초람왕이보고옥장을거두
 우니빙봉이혼겁하기를마지아니호야평명에군마를돌니여티청에진에당도호야초
 랫왕하신에디모용역과옥장에도화를말호야상전치말자호니티청이듯고티경티괴
 호야빙봉이무슴교통이잇서글리함인가호야의심호니진소위소인심사소인지로다
 무단이의심이가득호야여성티절왕선봉이당초에분군호야적진오난길을막자호디
 니슈순간상전호야승부도결치아니호고무단이되병호야교전치마자호니이무슴일
 인고저갓고웃지일국에선봉이되리요군법를어기지못하리라호니빙봉이황송무지
 호며참괴한마암이가득호야복디사죄호니티청이디노를말호야군사로호야금호령
 호야아직너치라호니군사주저호야하난지라티청이디노를말호야군사멧사름을즉
 참호며빙봉를호령호야니치며왕네죄로말호면곳베일거시로되아적용서호야니보
 디노니또무삼마암를먹으면그제난군법를어기지못하리라호니빙봉이하릴읍시
 기어나와번소에도라가곰호이징각호니분심이디발호야갈을만지여왕남아던디간
 에나미운슈웃지갓치불길호리요당초에군사를복방에발호디련호를유의함이라
 여의치못호야남관목에게도라가미타인에일만호야주고게우선봉하나를비하며남
 적이당초빙제할씩에난삼분련하호야조조손호이부키를갓치하자하디니삼분련하

는고사호고동역오랑캐래청에손에죽기를면치못호게되야씨니차장너하오호며리
 를갈고티청에게원슈를잡기로작덩호니잇씩빙봉부하장멧사름이또한분심이디발
 호야낙누호며고왕장군이금일티청에게봉욕이무슈할뿐아니라그히를면치못호게
 되야씨니사제지급한위라양척를진작너여후회가음게호소서호며축분호니빙봉이
 듯고분괴의심호야금석에티청죽이기로작덩호니래청이당초의중국을유의호야구
 원할리러니남관목이자작던조되야동이에난아무이익이읍고빙봉이천인부당지역
 이잇고남관목과상응되미동이가후일에중국을유의호야치기가용이치못호지라진
 작득의추에빙봉을읍서시지아니호면후환이될자라일로써무단이빙봉를죽이고자
 함이요실로빙봉이죄가잇서글이함은아니라빙봉이야심슴경에부하제장을거나리
 고상의단체약속호야갈을들고래청을죽이고자호야곳장중에들어가더라이씩래청
 이빙봉을이갓치너뜨치고무슴일리잇실가렵여되야야심도록자지아니호고갈을잡
 고잇더니삼경이 지나사경되도록자지아니호더니과년빙봉이부하장을달이고들어
 오난지라심이사급호야갈을들고일러나장막뒤의로도라가그동덩를보더니빙봉이
 조금도렴여읍시장중에들어와래청를차지디그간곳를아지못할지라장막를헤치고
 뒤으로가라할차의래청의갈리번듯호며빙봉에목을치니빙봉이급히피호디목은상
 하지아니하고투구맛천지라빙봉이불시에티겁호야웃지할줄을아지못하다가다시

칼을들어 싸와 슈십여합에 불분승부하니 자년군중이 요란하니 래청에 부하장은 띠청
 을 도우려나 시며 맹봉에 부하장은 맹봉을 도우려나 시니 졸디에 일군이 각입되야 상견
 호다가 평명의 각々 삼십니 막게 진치고 상정하니 초람왕에 일리점々 순성되야 쳐들어
 갈시션시가 들외 쥬용고 왕적군이 불시에 상정하미 우리 군사들이 가면 적진이 반다시
 양합하니 아적여기 잇셔 그 동정을 보외 쥬선호 소셔 혼디 초람왕이 듯고 디희하니 그
 말을 좃쳐아니 들어가고 유진하니 래청이 공년이 맹봉은 죽이지도 못호고 일리여의
 치 못하니 자년 심난하니 침식이 불편하니 중군참모사 오춘화 그 동정을 알고 쥬용간
 왕원용은 근심치마시고 이히로서 맹봉을 달니 여양진이 화합하게 호소셔 방금하신이
 군사들 다리고 오다가 유진호고 이승은 우리 일군이 각입하니 상정하호미라 양호상투
 에기세불이라 호여씨니 원용은 겁히 생각호사 맹봉으로 한가지 화합호야 하신들 처파
 호시고 년국을 파호야 디공을 세우소서 호니 래청이 듯고 양구에 불열호야 왕도군에 말
 리을치아니 호도다 하신으로 말호면 글러호나 동이 형편으로 보면 맹봉 일인이 하신과
 동등호니 맹봉을 이썬승시호야 읍시지아니 호면 하시들 다시기 달리요도군은 맹봉잡
 을 계교을 생각호라 하필 연적남관목에 신하되기가 무위시다 호하리요 나와 갖치병심
 동역호야 맹봉을 이썬승시호야 잡고 하신들 처파함이 웃더 호고 하신들 파한즉 년국은
 죽기 근심될거시 읍고 남관목이 비록 용맹이 과인호고 병마가 만타호나 동이 디병과나

에 용역을 당치 못하리니 동이 왕으로 허야 금중국던조가 되게 호면 조군과나 에공은 말
 할썬아니라 조々 손々 허부커령화가 군왕에 일으리니 그아나 다 호하리요 한디 춘화 듯
 고 디희호야 왕원용이 이 갖치 하설디 경이 면한 묘게 잇시니 원컨디 호호 소셔 래청이
 디희호야 저축하여 문난지라 춘화 왕명일에 춘화로 호야 금여차々 호오면 근심될바 읍시리다 래청이
 다시 올거시니 그제야 심복으로 호야 금여차々 호오면 근심될바 읍시리다 래청이
 희불자승호야 곳서 간을 닦거 맹봉에 게보너 씨니 디강호야 쓰되 작일상정함은 일시
 지분이 라 잇지 씨패렴하리요 도시니 의과실이니 조금도 분역지 말고 국사를 한가지 심
 씨 하신들 파호고 또 한일 후에 너가 불민한 일리 잇거던 그제 난장군 갈아 리 혼릭을 못치
 리니 분심을 뉘의 시고 속기 상면호야 타인에 조소함이 읍게 호라 호고 춘화를 보너 여달
 니게 호니 춘화 즉 일발 호야 맹봉에 진의 당도 호야 맹봉보기를 원호니 맹봉이 의심호
 야 보지아니 호라 호다가 생각호되 제아 무리 구변이 조타호야 도너가 안드르면 무삼관
 계 잇시리요 호고 곳들 어오라 호야 동좌호미 춘화 비래 후 래청에서 간를 뉘여 노며 소진
 장의 수단을 가저 일장 설화호야 이히를 분석하니 맹봉이 츠음에 난의 심호야 듯기를 질
 기지아니 하다가 점々 그수단에 빠져 유예 미결하난 자라 춘화 그제야 감언이 설로 맹봉
 에 오장을 독이니 맹봉이 듯고 자하되 그 진위를 아지 못호야 지체호거 날 곳 회정호야 래
 청을 보고 우셔 왕원용은 장디에 안져 처々 호라 호니 래청이 디희호야 곳우마에 피

를가저맹셔를써서보느니맹봉이보고조금도의심치아니하고곳군사를다리고티청
 의진으로오니티청이천이군문박게나와영접한지라맹봉은참피한마암이잇서북
 지사죄하느니티청이그짓로여하야왈장군이엇지이갓치하리오남즈던지간에나티반
 다시의기가잇실지라도시니에허물이라장군이이갓치하면되리여정의아니라하며
 손을잡어당상에안치고술을나와관티하고종일질길셔언간셔양이저산하미셔조
 날어들고원산에돌아가난점々한구름은고기비늘을지여총々이러나며진중에북
 소리는々이일모함을보하니맹봉이취중에자연비화가싱기여비회수유다가취합
 을이기지못하야갈을노코난간의지하느니춘화티청을보고눈치하미티청이심복
 인역스로히야금맹봉에목을치니맹봉에진명이춘화수단에싸저황천귀익이되니가
 련하도다오춘화에일이여삼촌절을흔들어만부부당지장부를취중미성지인이되게
 하느니엇지진동치아니하리오마는인자는참아못할바로다조맹봉은당초에북방에귀
 병하미위의가엄속하느니남관목에게속어흥복하고티청과삼분천하던맹세난비
 거서양풍이되고계우선봉이되여초람왕하신에게유장조화를만나다행이진명을부
 지하였다가또한무죄히티청에무도한갈의죽기를면치못하였느니그용맹을가져진
 명을보전하였시니북방을향하야가면초람왕에심으로도졸연이파하지못할지라삼
 시간의오춘화간에싸져흔뵈을써어시니엇지불상치아니하리오티청이맹봉을유

인하야죽이고군사를호령하야증돈하고등이장항티로하야금선봉을삼고군스를돌
 니여초람왕을막으니이셔초람왕이티맹양인의동정을보다가태청이맹봉을유인하
 야죽이고음을알고일회일비하느니양진이교전하미가돌쇠항티로더부러싸운지수
 합이못되야항티에목이돌쇠에갈을당치못하난지라티청이보고티경티분하야갈을
 잡아말에올나돌쇠로마져상전일빅오십여합의승부를분하느니진소위적수상봉이
 라초람왕이장티에안져양안에상투함을보고그육역을충찬하며티청에갈법이비상
 함을사랑하야육장을들어사방을가라쳐던지니육장이또한청용이되나지라적진중
 에춘화그육장에신기함을보고티청에게무슴일리잇실가염려하야급히청를쳐거두
 니티청이돌쇠를바리고도라가그곡절을물으니춘화전장하던곳을가라치나지라바
 라보니청용이썰리를쳐며수렴을거사리고사방으로회하난지라춘화를보고그리역
 을무르니춘화그육말하난차다시명진중으로무슴진언을배푸느니홀디에청용은간
 디읍고육장일기가공중으로서진중에떨어지나지라그제야초람왕에조화와육장이
 신통함을못난탄복하고다시싸울마암이읍셔춘화로한가지상의하야동이로들이가
 동이왕제고하야동이명장을다리고티군을발하야다시오면그간의하신이남관목
 을읍셔리나남관목이읍신즉또한일변에근심은들미라그제야티군을모라치면하신
 이비록지조잇다하나웃지우리동을당하리요계교를증하고그잇든날평명에군사

를다리고동림을바라고도망하난지라이썩초람왕이티청잡을모계를생각하야심사
을승처못하야더니그잇는날적진을바라보미적막소조한지라담지하야본즉승야도
망한지라그히실을아지못하야심중탄지하미확실이드망하야동이로들어감이나후
환이잇실지라도아직은근심이읍시니티청을쫓지말고그간에급히남적을쳐파하고
런즈을마져되물리라하고곳군사를돌니여형주를바라고가니라이썩합용이형주에
당도하니형주자사왕몽이군사를모라디적하난지라합용이릭총마를달니여팔지창
을번뜩이며왕몽을수합이못되여마하에떨어치니적진이디피한지라합용이성중에
들어가릭성을안둔하고군사를호케하니형주군병이일만오천이요양초구비한지라
날로초람왕을기달이더니초람왕은아니오고남적이천이디군을거나리고형주병을
합하야왕몽으로한가지하신을막으라하야오다가릭청이맹몽을유인하야죽이고동
이로갓다하며설중가상으로형주자사왕몽이합용에창의죽고형주를일어싸함을듯
고분괴디발하야오다가합용에전군를맞나군사수익을죽이고합용으로마저싸운지
사심여합에합용이피한지라합용이성에들어가나지아니하니남적이분괴디발하야
성을파하랴하되원리형주성첩이견고하야파하지못할지라리판원이이썩군사로갓
치은지라남적에게고왈성첩이구더줄디에파하지못하리니군사로하야금질육을무
수하하야분괴를도두오면합용은원리승질리완약강직하야반다시성문을열고디적

하리니승시하야합용을에우워싸고성중에들어가면형주병이죽지아니하고양초티
다하니죽히하신을막을지요합용은밍호갓튼장수라용이히잡지못할지니군사로는
야금첩々히에우워싸면불과수일에필경자사하리니하신이오기전의헿하소서남적
이죽쳐성을바라고질육하기를마지아니하니합용이과연성문을열고디적하난지라
남적이군사를모라에우워싸니합용이불사에적진사방미북한군사를맞나첩々히에
위싸난지라그제야묘계에싸질줄알고창황망조하야동셔남북으로횡치하며적군을
무수이죽이되능히버셔나지못할지라종일토록갈역무수하다가사방군사점々더함
을보고양던탄식왈사면기초가난초피왕에놀이뿐아니로다가련하도다우리초람왕
님에소식들으시고오시면니에신명이부지하련마는금명간오시지아니하시면니에
신명은고사하고형주병마양초와허다릭성이읍서지며어육이될거시니웃지한심치
아니하리요환던은구버살피사우리초람왕에게리별하사금일너로오시게하소서
하며누하야우하야창을들어군사수심을디갈에못질으고분괴디던하야자살코자하
니이썩남적이성상에안져호령하야왈최합용아웃지던시를아지못하고부지림시반
적하신을도우워항복지아니하리요호령이추상갓튼지라합용이더욱분괴충던하야
창을들어가라치며적군을무수히살히하니남적이또한되로하야마상에올너마저싸
와수심여합에합용이괴운이쇠진하야당치못하고거의죽게되엿더니초람왕이헿군

호야형주지방에 당도호미남적이 갑용을에 우워싸고 날로 호령이 추상갓트며 항복호
 기를지축호며형주양초을달취하였다함을듯고되경호야육장을집고공중에행호야
 선봉장갑용을회호지말고하신이여기오니너에육장을바다에흔뱃을부치라너을
 한번보면황제외부모에원수를풀니라호였다니금일상봉이웃지가치느지리요이
 늑아승련입디할소야호며연상단셔폐쳐들고육장을사방으로가라쳐던지며티금을
 동셔나북으로회룡호야던지니평성지조금일에항구이라육장은청용이되여운무를
 지으며수미를상응호야입을주홍갓치별이고달아들며금광은이화분호야사방에
 요란호며청련뱃일에벽역이남관목두상에떨어지나듯홀디에정신이황홀호며수족
 을요동호기불편호지라사방군사흔비릭산호야웃지할줄물나셔루말바죽난지부지
 기수라관원이관목으로한가지정신을진정호지못호야쥬져호호다가불시에또한
 돌쇠티군이풍우갓차오난지라그제야되리여정신을수습호야갈을잡어되정호니돌
 을갈며사성을볼고호고말아들며갑용은사중구성이라또한장창을두루며귀호람구
 에모양으로좌총우들호며초름왕은던신이라번기갓치회행호니관목관원과적진다
 소제장이아무리지모용약이잇싸나웃지하리요금기말야호야난황천키키이되고말

지라남리양적이육장도화에잡힌바되니라초름왕이양적을잡고성중에들어가승전
 고을올리며군사를호케호니그안이절길소야형주성너성외진동하더라갑용천송마
 담등제장은창과갈을들고남리양적을당장죽이라호난지라초름왕이말여왈군등은
 참으라이갓치만고무도극심한디적을웃지황상압헤그죄을론수호고뱃주티도상에
 죽이지아니하리요제장등이그제야죽이지난못호나웃지죽이난형용이읍시리요관
 목이티분호야낙루호며양련탄식호기를마지아니호더라이일평명에관목관원양적
 을함거의실고되군을안돈호야기가을부르며경사로을나가니그영귀환영함이웃지
 남적이북방을파호고반사할씨의비호며또호전일초름왕이연국을항복받고반사호
 면웃지지금에당호리요쳐호에빅성중남너노소가읍시만세를부르며초름왕에공디
 을찬송호나황령이초미함을인호야할누비참하난지잇더라십여일만에경사에들어
 가유진호고궁궐과가택에참담소조함을바라보미누수홀너강히되난듯분역한호표
 옥우에서못치난지라황제를아무리차지되운무만리에용적을아지못할지라되조황
 제에신령하심도금일뿐이로다되명종사에출후함은일구난설이러라가련호시도다
 근문화제남적에곤를바다웃지할바을아지못호야호조황제에유셔을열어보고양련
 탄식호사식발위승호시고의구로쫓쳐나갈시궁궐에불을노미구중궁궐이홀지에화
 광이충천호야연염이장안에가득호며다소화가되엇난지라경사에황제봉호섯다호

더라람초왕이이소문을듯고양던탄식활하던이명실을도우시지안이할사디화발
 어금도경사하미련폐지전에천참만육하야종묘에제스하고오장에첩々히짜인한을
 풀고자할앗더니우리던조하신을기다리지아니하여씨니웃지할면조호리요하며갈
 을들어자결코자하니가위충신이로다쪽금이라도충성치못한마암이잇스면이씨를
 당하야그마암을아지못할지로다그썸외라자괴에부모처속이며가택이그디경이되
 야씨니남적에한비나요동만리에수년간고초를싱각하미웃지근문제에과실이읍다
 하리요일분이라도불양한마암이잇지안이하고자살코자하난지경에당도하니진소
 위충성이라하겠도다자살코자할차에좌우제장이말니여형치못하교종일도록암々
 고사하미그곡절을아지못할바잇도다그곡절은엇지민고츠음연국철씩에티조황제
 쟈서선관을보니여련상단을주시고하교부탁하시던일이라연국을치고난신을멸
 하고동이틀물니치고인군을마저세우위사직을안보하라하시엇시니황제에참혹할
 일은읍실지라하미더욱삼이등에젓고불이오장에발하야웃지할바를아지못하야상
 에의지하야조으더니불시경사에화광이조요흔티오식구름이궁중으로쫓어나오더
 니강심사로들어가두류하다가백운사로이거하미백운스중으로서백운일점이나와
 영접하야들이난지라의아불이하야셔다르니일장준몽이라심중스지하미황제쟈서

반다시백운스에기시오며그곳에호위하난스름이잇슴이로다조급한마암을노코곳
 군스수천을다리고마담등제인으로용례를피쳐백운스로터령하라하고옥장을급혀
 백운사로가니라이떡근문제사발위승하고주류사방하사강심사에당도하사수삭을
 두류하시며련안의비참하진빛절가지시고시를읍읍조리며세월을보너시니그시를
 에알

故國山川遠

고국에산천이머을고

空門日月長

공문에일월이길도다

王孫春草恨

왕손에봄풀한은

杜宇血淋浪

두우에피가림낭하도다

하사스더라영나산을지나백운사로가실적이씨월당티사로야부々를모시고세월을
 보너더니노야백운을씩々로보고사랑하야백운을두고시일절을지여씨니하여씨되

雲外山青山外雲白

구름밖게산이풀으고산밖게구름이희여씨니

白雲山上白雲重

백운산위에백운이거듭이로다

白雲飛去青山在

백운이탈나가미청산이잇씨니

靑山還插白雲中

청산이되리여백운가운티삽히엿도다

하엿더라월당티사보고함소하야알노야쎄압서심사이갓지불편하시니빈도에불민

향음이라 디 단 황송 향의 다 향며 불원간 반가운 소식이 잇사 오리니 과도히 하려 치마시
 압소서 노야 그 곡저을 물은 디 월당대 사 허희 탄식 향며 답지 아니 향는 지라 답々 허슈 일
 을 보너 디니 일々 은 백운이 사 중을 응 위 향고 식기 영룡 향야 산 천을 들너 잇고 초목 금수
 요동치 안이 하며 청천 백학이 알 연이 길게 울고 가 더니 조 금 잇다가 동 남 간으로 오 식 구
 름이 날나 오미 사 중으로 백운이 점々 나 와 영 접 하 난 지라 보기 에 심히 괴 상 하 더니 월 당
 디 사 군 승을 다 리고 나가 엇 더 한 일 위 산 승을 뵈 시고 사 중으로 인도 하야 백운 암에 좌 중
 하 게 하고 곳 노야 초 소로 의 셔 은 공이 고 왈 노야 는 급히 나 오 사 서 산 노 불 왕을 보이 소 서
 하 거 날 노야 그 곡 절을 아 지 못 하고 의 관 을 증 디 하 하야 월 당 을 썩 라 가 니 백운 암 을 정 결
 소 쇠 향고 거 처 범 절을 비 상 향게 향 앓 난 디 암 중 에 일 위 노 승이 안 저 씨 니 용 모 비 범 향고
 위 의 암 속 향야 척 지 에 임 하 디 자 년 황 공 한 마 암 이 발 향야 들 어 가 지 못 향고 복 저 비 범 향고
 난 줄 을 썩 닷 지 못 향 앓 더 라 그 도 승이 길 이 읊 향야 답 례 향고 그 승 명 거 주 를 하 문 향니 노
 야 또 훈 승 명 거 주 를 변 경 처 못 향고 이 실 죽 고 향니 그 도 승이 옥 안 에 수 식 이 만 면 향며 락
 루 중 횡 향야 노야 에 손 을 잡고 기 리 체 읊 향기 를 마 지 아 니 향미 노야 자 연 히 황 공 무 지 향
 야 돈 수 섹 비 상 언 향며 양 던 동 곡 하 니 서 산 노 불 왕 에 조 화 로 월 당 디 사 에 심 을 빌 어 그리
 향야 던 지 자 연 히 서 루 화 답 향니 불 의 에 근 문 황 제 와 노야 군 신 간 으 로 백운 사 중 에 뵈 임
 을 아 지 못 향 앓 더 라 월 당 이 복 저 비 사 향야 고 왈 황 제 루 지 에 임 향시 미 복 송 황 감 향오 나

떨니 나가 영 접 지 못 향 오며 거 처 범 절 이 누 추 하 오 니 죄 송 만々 으 로 소 이 다 황 제 그 제 야
 디 경 향 사 그 섹 절 을 물 으 니 월 당 이 다 시 고 왈 소 신 승 은 번 디 령 은 스 에 잇 스 압 더 니 디 조
 황 제 에 명 령 을 밋 자 와 백운 사 로 와 서 초 롬 노야 부々 를 뵈 시고 한 가 지 황 제 를 뵈 실 가 향
 음 으 로 소 이 다 황 제 총 공 에 나 누 향 사 나 의 를 적 시 우 며 자 단 하 사 날 로 백운 을 디 향야 유
 々 한 시 절 을 보 너 시 며 노야 년 금 칠 십 이 로 되 조 셔 으 로 의 관 을 증 디 향고 비 조 하 야 지 너
 니 그 군 신 간 상 우 지 년 이 런 칭 에 죽 지 안 이 하 더 라 이 셔 초 롬 왕 이 북 방 을 향 향야 갈 식 오
 식 구 름 을 바 라 고 백운 사 에 당 도 하 디 던 키 디 벽 하 고 봉 회 노 전 향야 씨 며 영 상 에 다 백운
 이 요 별 유 천 지 비 인 간 이 라 사 문 에 립 하 니 암 상 암 하 가 도 시 백운 이 라 백운 중 에 만 학 천
 봉 은 백 포 장 을 들 너 창 송 독 죽 으 로 금 수 를 수 어 잇 고 잔々 이 흘 러 가 난 벽 계 난 운 어
 종 청 하 야 비 파 를 치 난 듯 송 탑 을 립 향 미 백 학 일 쌍 이 우 의 편 천 향야 동 천 으 로 날 나 가 다
 가 남 천 을 향 향야 두 상 으 로 지 나 가 머 러 울 々 々 출 을 추 며 알 년 이 기 리 울 어 속 기 을 보 향
 난 듯 선 경 이 분 명 하 다 심 신 이 황 홀 향야 잠 산 주 저 하 디 암 하 셔 경 이 희 미 하 야 인 간 과 식
 을 거 절 향 난 지 라 심 중 에 장 단 부 리 향야 창 황 분 주 향 더 니 층 암 절 벽 상 으 로 일 위 노 승이
 표 연 이 나 러 와 합 장 비 례 향야 고 왈 디 왕 이 이 갓 처 원 로 에 발 션 향 사 산 문 에 립 향시 미 빈
 되 노 망 무 지 향와 이 예 뵈 오 니 송 퇴 무 지 로 소 이 다 초 롬 왕 이 곡 절 을 아 지 못 향야 의 아 향
 다 가 자 세 히 보 니 곡 령 은 사 에 잇 던 월 당 디 사 라 디 희 향야 답 례 향고 문 왈 대 사 웃 지 향여

이곳에와잇씨며향선에음을웃지알아잇치대례하시난요불승민망으로소이다대
 사마소향고영접하야사중으로인도향고근문황제기신곳과노야부초소를일々히
 인도향야군신부초우년이백운사에상봉향미청산은첩々향고백운은담々향야그비
 회참담합과상환상회함은일필난리러라마참마담등이군사를산외에유진향고우례
 를사문에등대하얏는지라초름왕이황제를마저우례에피시고노야부々를모셔월당
 대사의은덕을사례향고경사로향하니고금에잇기치기뿔과사회에영광함이또한최
 음이라하겠도다쳐々에티평가요인々이초름왕에송덕이라경사에당도향야황제를
 모셔용상에안치시니다시빅운사중저산노불왕이가사의를벗고골용포의을입어씨
 니법계인간에황제노불왕에영귀함을누리시엿더라남관목리관원을잡어들어구형
 론죄향고빅쥬티도상에육디치참향고슴족을멸하시니빅성에원역과초람왕부하장
 에원슈플어젧시나초람왕에함은또한다하지아니향여씨니그무슴일잇고화조일셔
 에사랑향고총의향든강낭홍년에소식이라소식을담지한죽남적이우중에가두우고
 잇튼날죽이라향야난대그날밤에김피가둔옥문을열고도망향얏다향난대벽난에중
 적이또한되년한지라심중에의아블리향야사방에담지향야근심으로지낙난중근문
 제시절초름왕평성에난난리가웃지그리만던지연왕에서간이황상과초름왕제왔난
 대동이남적에죽음을알고사반공비가되겠다향야대군을발향야티청춘화로향야금

중국을치게할씨이씨연왕이군사를거라리고초름왕을도우워형쥬로오다가형쥬에
 서초름왕이관목관원을잡고경사로올나감을듯고경사로가라할차에등이대장문방
 티청이중국디경을벌향야오다가연왕이군사를다리고경사로가고연국이비이엿싸
 함을듯고연국에들어가빅성을로약향고양초를탈취향야점々들어오니그형제가장
 위급한지라일로써상달함이라황제보시고근심향사초름왕을불너상의향사등이
 를치게하시니초름왕이비명훈티황제대회향사죽일다시초름왕을초왕으로봉향시
 고대승상겸티원슈벌동이장군을특별리슴으시고제장을일々이관작을주시되유천
 송최갑용마담리성빅등은특별리티관을비향시고가돌쇠로또한대관을비하사초왕
 으로한가지동이를쳐과향게하시고쥬영등이빅구십일인을다시불러관작을회복하
 게하시니라초왕이티일발군향야형양에당도향야동이군으로상전할씨이씨연왕이
 또훈군사를다리고은지라초왕이마져슈월간적조지회를파향고담론이장황향더니
 불의에청풍이진々향며빅운이편々향야스괴영룡향고이상한행기진동향더니황의
 동조흥의동조청의동조슴동조공중으로표표년이오더니명딘중으로돌년이들어와
 당상에일조로써々비례향야초왕에게보이며왕초왕은쇼조에안던를기특향시나이
 가훈대각々갈과창과활을가져씨니용모단야향고위의엄숙향나선풍도골이요일때
 문장인물이라초왕이정신을슈습향야쥬파를홀니여조제히보니곳소식이적막향야

심신이답々고주사야몽으로성각호며사모호든강낭홍년벽난이라연왕을창황이
 초소로도라보니고손들잡어인사호며눈물흘니여설화호니낭등숨인이당초에쳐사
 집에잇셔초름왕에소식을탐지할시소식을달지할슈음고날로병셔을이기라호미치
 음에난이키지아니호라한티쳐사미소호야왕낭등이아지못합이로다이가튼난시를
 당호야웃지남녀가달으리요나는번리벽운산에잇셔더니원당티사에청을듯고이곳
 애음이라웃지고집호리요후일초름왕을형양에상봉할날리잇스리니아즉공부호여
 후일을기달리라호니월당대사라함을듯고마암을돌니여날로병셔를독숨호고밤이
 면후원에을너전장을연습호니쳐사동호웃사세별을닉이여유며황의난강낭을입히
 고홍의난홍년을입히고청의난벽난을입히고자기난벽의을입어씨니강낭은황의동
 즈가되고홍년은홍의동즈가되고벽난은청의동즈가되고자기난자년이벽의선성이
 되었더라벽의선성이날로황홍청숨동즈로광음을보니더니일々은황홍청숨동즈를
 불너안치고일러왕우리연분이진호여씨니나는벽운산으로돌아갈거시니낭등은형
 양으로가져슈년간적막한심사를폐고대공을세우위가명을후세에날니라호며백운
 을타고표년이청연에소사망년이가니하날은창々호고구름은담々호아가난곳을
 아지못할지라하일읍셔공중을향호야지비즌별호고황홍청숨동즈금책을희롱호야
 형양을향호고음을일々히말호니초왕이듯고차탄부리호야자기에지닌든말과백운

사에게셔황제부모마자음을일장설화호니숨인이타설대희호며수두락누호여월당
 대사에은혜일구난설이라초왕이슈년간적조지회를폐고형양진중에그비밀함을아
 지못호게호고황홍청숨동즈를대접호기를지공이호니군중에웃지알지잇시리요동
 이군이대승호야그세엄중호미명진장졸은다년전정지여에되곤핍진할뿐사니라피
 만자승호야상전호기를심씨지아니호고유육에침범호야군법이증일치아니호며또
 한득병지티만이라황홍청숨동즈군중을살피여보고대경호여왕군중이이갓치히래
 호니웃지승전호가을바라리요초왕때고호야군령을엄슈기호고전후지계를자세히
 고호니초왕이대희호야황의동즈로사마를비호고홍의동즈로좌표의장을숨고청의
 동즈로우표의장을숨아사마를도우게호미황홍청숨동즈복디사례호고동이과호기
 를자원호니초왕이허락호고제장을졸슈우게호더라그잇는날평명에서마좌우표의
 장을다리고동군이군으로상전할셔이때래청이중국을쳐들어오미의과가양々호야독
 일무이호나전일초왕을장조화를맞나흔이상흔지라무숨간담이잇셔글리호였던지
 대호왕명원슈하신은어대가고일인동즈로호야금대적호난요싸우지아니하랴호니
 사마분발호야좌우표의장을명호야잡으라호니원리사마는활을가지고좌표의장홍
 의동즈는창을쓰고우표의장청의동즈는쌍검을씨니조화를척한지라좌우장이총령
 호고나난다시마상의을나래청을잡으라호니래청이대노호야싸우워사십여합에승

부미결하니 그제야 경홀리 보지 못할지오 더욱동이 명장으로 어린동으로 싸와 잡지 못
 한디 군사에 슈치될바라 대발노발하야 다시 오심여합에 불분승부하고 괴운이 첨々외
 진한난지라 분기령턴하야 이 | 을갈고달아들어 대호일성을벽역갓치전으며 좌우장
 을잡으라 하되 잡지는 못하교 셔루어우려져 싸을싸음이라 초왕이 장대에 안져양진에
 상전함을보미 좌우표기장은몸이 강낭습월에 제비가되야 동풍을희롱하교 장창쌍금
 은침々철야에 번기되야 동셔남북으로 횡횡하니 청의홍의상잡하야 청홍을불분이요
 적장래청은여산대호갓치소리질으며 철퇴홀상홀하야 청총마는운간용이 되고양
 눈은번기가되여심을우슈히쓰며잡으라 하되 공년이심만허비할뿐이라 적진으로서
 양장이티청에분기대발함을보고나와 협공하니 사마그제야 청홍양장에게 무습히가
 잇실가염여하야 우슈에든슈괴을져어 청홍양장을각々세우고 잠간지체하게하며마
 상에을나적장으로상전하다가 다시수괴를들어 청홍양장으로적진협공하느장수를
 취하게하교 활소리한번요란이나더니 활살이반공에소사학에출을추다가전장중에
 횡횡하야 홍청양장이 좌우협공하느장수를잡자래청에가슴을마치니래청이편신락
 마하야 죽는지라래청이 죽자 좌우협공하느장수일시에창두검하에 혼백을부치니그
 지조청량치못할바러라 적진에서래청과 좌우협장이일시에상함을보고사산분주하
 야웃지할바를아지못하니 오춘화당차시하야 제장을다리고도망하야연경에당도하

니이씨동이왕이대군을거나리고티청에뒤를연속하야연경에들어와춘화를맛
 나티청에소식을듯고대경질식하야왈니에수죽을쓴엇시니웃지하면조호리요양
 락단식하기를마지아니하티춘화간왈티왕은웃지갓치하릿가사지불가부성이
 라옥체를보중하사연경에들어가소서연경은성첩이긋고양초티다하야죽기적병
 을더적하리니이노하날이도우심이라심만티병을아직이곳에유딘하교잇시면필
 연초왕하신이군사를다리고올거시니이일티로는병법에승전한다하엿시니전장
 괴구를준비하소서동이왕이듯고그계교를쫓차연경에들어가유딘하교잇더니초
 왕이사마승전함을보고티회하야군중에상쥬고수일후연국에들어갈시연왕이이
 씨갓치가다가동이군이연경에유딘함을듯고티경망조하야초왕보고지성고왈티
 왕이안이면연국은어육이될지요장차동이국이될지니차장니하리요하며차탄하
 티초왕이위로왈엇지갓치비척하리요하며담화하더니문득군사보하되동이군
 이연국에들어와연왕후래즈를잡아군중에두고연왕이동이를도우지안이하교
 초왕으로한가지병심합역하야동이를히척하니그죄죽지안이한지라맛당이죽일
 지라하느소식이들어오니연왕이더욱질식하야왈연국은망하도다불쌍한쳐즈가
 그무도호오랑개에게죽음을면치못하리니엇지할도리잇스리요하며자결하교자
 하거날초왕이목불인견이라역권하야왈대왕은염여치마소서하교곳가돌쇠사마

제장을 불너 상의하니 이셔 돌쇠이 소문을 듯고 절치부심하야 분심을 참지 못하더니
 분년고왈쇼장이 평성심을 다하야 동이를 잡으리다 만약 글어치 못하면 근법을 바
 들이다하며 분년대발하야 칼을 들어 남천을 가라치며 탄식하니 그마암을 알지라사
 마종용고왈쇼장에 쇼견에는 선봉가장군이 번리용역이 비범할뿐안이라저갓치 충
 심을 다하야 절치부심하니 연국을 반다시 회복할지라 연왕으로 한가지 동이를 치게
 하고 초왕은 동이에 들어가 동이국을 안중하 면설혹동이 왕을 잡지 못하야 도갈바가
 읍시리니 동이잡기는 정중지어 요망중지금으로 소이다 좌우제장이 들으리 계교가
 장피회하나 연국은 도라보지안이 하는 말이라 연왕이 듯고 수색이 만면하야 자탄하
 기를 마지아니하니 초왕이 생각하리 계교가 하지아니한지라 선봉이 동이를 잡은즉
 병논을 속기 평중할지나 만약 글어치 못하면 사근취원이요 노이 무공이라 연왕이 피
 회중국에 발할지나 도저히을치아니한지라 사마에 말리불가하다하며 그니 용을 설
 명하나 사마고기를 속이고 아무말리 읍난지라 돌쇠들이 뒤웃지분하지아니하리요
 그분함은 달음아니라 초왕과 사마가 은근이 자기을 조롱하야 동이를 잡지 못하다하
 란티 인연함이라 덕호왕초왕은 웃지갓치 소장을 보시나 잇고 소장비록용명이
 읍다하나 동이왕잡기난근심치아니하나이다하며 노기등々한지라 초왕이 그제야

연왕으로 중군을 거라리게하고 돌쇠로 선봉을 숨고 최갑용유천송등으로 후군을 숨
 아 연국을 회복하고 동이를 잡게하고 돌쇠을 보고 신々부탁하니 돌쇠하날을 가라치
 밍세하거날 초왕이 사마등숨인으로 선봉을 숨어 동련을 바라고 행하야 가니라 피지
 々々라 초왕과 사마에 지모여 처음에 사마에 말리을치아니하다 합과나 쥘부득이하
 야 돌쇠로 연국을 회복하게 함은 도시돌쇠로하야 금분귀을도우워야 모쪼록 연국
 을 회복하게 함이니 그원슈됨과 황의동조난이 갓튼원슈에 사마됨을 알지라 이뿐아
 니라 용인하고 인하며 구인함을 일々이다 기록지 못할나라이셔 연왕이 사세부득
 이 하야 돌쇠로 한가지 롱이를 철시동이 연왕이 오고 초왕은 오지아니함을 듯고 디희
 하야 마저 싸울시 돌쇠동이 왕으로 교전한지구심여 합에 불분승부하되 돌쇠난평성
 심을 다하야 달아드니 동이왕은 번리용역이 잇고 숨백근철퇴을 들고 팔십근장창을
 써니련하리장이 요인간역사라 돌쇠로 상전하리 처음보난바라그당돌합과 용역이
 숨을 탄복하야 잡지 못하고 일모후번딘에 도라가 앙련자탄하야 알명나라련디에이
 갓튼장슈만이 잇시니 하일의 하신을 잡어련하을 중하리요하니 춘회보고 십분위로
 하여 월돌쇠는 원리연왕에 장슈로 초왕에 항복할제 밍세코 심복지아니하랴하되 하
 신이 지극히 관디함의 항복한바되야 써니 방금 연국이 급한지라고 국을 생각하야 불
 고사싱하야 또한연왕후와 황려즈잡은디 인연하야 절치부심하고저갓치함이니경

홀이 되 적지 못할지라 연왕후 티즈를 방금 죽인 다호고 장티에 안치여 연왕을 보이면
 역왕이 항복할지라 연왕은 번티련승이 유약호야 처즈에 죽임을 보 면 반다시 항복할
 지니 연왕이 항복호면 돌쇠야 무리 용명이 잇시나 할도 리 읍고 반다시 자결호리니 돌
 쇠또한 자결호 죽하 신이 비록 연신이라 호고 황흥청승동즈을 었더 괴묘한 지조 잇다
 호나 한 팔을 일음이라 웃지근 심호 오 잇가 소신에 계교을 힘호 소셔 동이 왕이 듯고 희
 불자승호야 왈 선심은 너에 공명이 라 선심이 아니 면 웃지이 괴계가 잇시 리 요하며 곳
 왕후와 티즈를 잡아 들려 장대도 마우에 안치고 죽이라 호야 연왕을 보이니 이 뒤 연왕
 연후 티즈에 목을 안고 통곡호며 척은 이우니 곡성이 낭즈호야 구련에 사모치난 듯 연
 왕이 한 번 보미 두눈이 감즈호며 가삼이 답즈호고 두 번 보미 오장이 녹난 듯 살점의
 서지 난 듯 모골이 송년호고 심증이 울렁즈호야 전신이 별즈떨여 정신이 읍시바라
 불썬이라 동이 왕이 추상갓치 호령호미 왕후 티즈 멀니 연왕을 바라 보며 고련 호디 호
 니 연왕이 더욱 웃지 할 줄 모으고 잇더니 문득 동이 왕에서 간이 왔 난 지라 그 셔간에 대
 강호여 씨되 너에 처즈을 죽일 거시니 항복하면 죽이지 아니 할 거시요 항복지 아니호
 고오리 그역호면 처즈에 괴기를 보니 리니 반찬 할지여 다호엿더라 연왕이 보고
 대경호야 심신을 증치 못호고 겨우 제장을 도라보와 상의호니 천송등 제장은 아
 무말도 못호고 돌쇠는 고두사 죄호야 왈 대왕이 금일이 디경이 되 심은 다 소장에 죄라

웃지 황송치 아니호릿가 방금 왕후 티즈를 잡아 대환을 면치 못하 실지니 차장니 하오
 며 티왕이 흥복하 실지라도 연국은 어육을 면치 못할 지오 왕후 티즈도 또 호디 화을 버
 셔나 지 못할 거시요 티왕께서 도환을 면치 못호을 거시오니 차장니 하이가 소장이 무
 지호와 이디경이 되 엿사오니 티왕은 면저 소장에 목을 베이시고 처분티로 호소셔호
 니 연왕이 웃지 할 바을 아지 못호야 유예미결호니 동이 왕은 더욱 호령을 천동갓치호
 며 위의 엄속호니 갑용 천송등 제장이 분괴팅련호야 말에 올너 칼을 잡아 쳐 딴을치고
 자호나 원티연경은 성상성하가 천여척이요 성곽이 단즈호야 사름에 심으리 웃지 할
 수가 읍난지라 하일 읍셔키 딴홀썬이요 돌쇠이그 동을 보고 분한마암이 깡가 일총호
 야 죽으라 호고 연왕은 아무말도 못호고 왕후 티즈 만싱각호야 여광여취호며 필경은
 흥복할모양이라 돌쇠에 충성괴티명 제장에 충직증티함을 보고 주져즈호다 가 일
 번 초왕을 원망호며 할누지 비축슈호고 장티에 너리 여항복호라 할셔 홀년 청련익일
 에 벽역이 떨어 지며 연상으로서 호령호야 왈 무도한 동이 왕은 연국왕후 티즈을 희하
 지 말고 너에 옥장을 바드라 호며 사마와 좌우 표괴장이 일시에 달아 들어 금척으르 성
 첩을 치니 성첩이 편스파 쇠하 난지라 동이 왕이 천만 몽외에 초왕을 만나 지척을 분변
 치 못호며 성첩이 다문어 지며 호령이련 동갓흔니 검광은 분즈호야 빅설리 날니며 화
 흥청승동즈동 풍승월이 연무분스호야 길지 호저에 하상그 음이로다 웃지 할 줄 아지

호 상 몽

못하야 주저々々하더니 홀디에 사디을 요지 부동호고 초왕에 계잡힌바 되미간사하
 고요악하야 남산적호가 도습한 오춘화난 그 황망분주한디 경에도 정신을 슈습하야
 북문을 열고 도망하난지라 좌표의 장흥의 동조 북문을 향하야 닦다가 춘화에 도망함
 을 보고 말을 모라싱금하니 춘화에 구변으로 도옥중에 강낭콩년을 달너지 못호고 연
 경성북문에 도망하다가 흥의 동조에 손에 잡힌바 되엿씨니 아지 못할바난이치로다
 청의 동조 우표의 장은 곳장디에 올라가 연왕후티 자을 구호하니 동이를 향하야 가던
 초왕사마가 웃지하야 연국에 와셔동이 왕오춘화를 잡고 연왕후티 자을 구안하노초
 왕이 당초에 동이를 향하야 가나 연국 열러가 죽지안하야 리성익마담등으로 유딘하
 게하고 사마와 좌우표의 장으로 옥장금척을 희롱하야 살갓치들어 오미러라이셔연
 왕이 흥복하랴하고 흥셔을 써셔 목에 글고 락누종회하야 주저々々하며 돌쇠난죽고
 자하고 갑용천송등은 분기링던하야 앙던자 단하던 차초왕과 사마 좌우표의 장이 일
 시에 들어와동이 왕오춘화를 잡고 왕후티 자을 구안함을 보고 디경디 회하야 몽중인
 가의 심하더라 초왕사마 등사인이동이 왕을 잡고 연왕전에 돌려연왕등저장을 디
 하니 그제야 세닷고 동공하기를 마지아나하되 돌쇠복디사 죄하야 죽기를 원한디 초
 왕이 손을잡어 당상에 안치고 주회를 나와 상음하니 천고괴사 요연다행이라 일
 에동이 왕을 함거에 안치고 철석으로 사방을 열거요동치 못하게하고 춘화는 특별리

호 상 몽

사마 등습인을 주어 처치하게하니 사마등이 디회하야 춘화에 이1을세고 쇠를 씌어
 말을 못하게하고 철색으로 목을 묶여 죄의장 말 쇠리에 달고 경사로를 나갈시 연왕
 도동하야 야경사로가 나라이셔 황상이 원슈가동이 왕과 오춘화를싱금호고 연국을
 회복하야 반사함을 들으시고 십니박게나오사 영접하시며 전필승공필취함을 못너
 치사하시니 초왕이 비복답예하고 권너에 들어가니 황상이 디년을 비설호고 초왕노
 야로한가지 죄중하사 초왕에 공덕을 의문하사 초왕을 청하야 사죄호고 그다년정별
 하던경광지사와 슈시변통지사를 하문하시니 초왕이 황송하나 사실티로 상달하미
 황상이 들으시고 일회일비하사 왈만고 충신이 요런하병선이요 그가 난고 초는 금고
 제일이라 하시고 또한 제장을 일々이 입시하사 사마 등습인에 너역승명거 주을 물으
 시니 초왕이 황공무디하나 웃지던 충을 음페하리요 이실죽고하니 황상이 용상을 처
 시며 왈만고 괴사 요런성연분이라 하시고 특별이 황봉쥬삼비를 친이 친하시며 사마
 황의 동조 강부인으로 초왕좌상궁을 봉하시며 파년근조다하사 충렬부인을 봉하시
 며 식읍팔백호을 주시고 우표의 장청의 왕조 백난으로 초왕우상궁 겸 슈열부인을 봉
 하시고 하교하사 왈 초왕으로 더부러런성과연이 잇시니 웃지다행치아나하리요하
 시고 식읍오백호을 주시고 연왕은 연국부커을 루리게하시고 식읍천호을 더하시고

호

상

몽

가돌죄로진남후를봉하고최갑용으로슈딩후를봉하고유천송으로진복후를
 봉시고마담으로위남후를봉하고리성벽으로삭방후를봉하고그외제장을일
 각이관작과은록을스급하시며쥬영등을관작을너리고초왕은특별리식을삼천
 호를가급하시며초왕비충열부인에부친강백운을이부상셔겸호랍병마스명민공
 칙지를특별리너리고다소제장에공을보답하시미동이왕출화에더쳐별이잇난
 지라잡아들여구형론죄하시동이왕으로스민을삼아변방에보너지고호국위남중
 으로동이왕을봉하시비도케하시고돌죄갑용등을보닉스동이백성으로하시금황
 상에덕뒤과초왕에공덕를선표케하시고오춘화를잡어들여구형론죄하시살내변
 시연나라스람으로국록을먹고남적을도우워현하을요란케하시며회급종묘스직하
 며또남적을비반하고동이티청으로동모하시야도명봉을유이살지하고티청이죽으
 미또한동이왕을도우워중원을요란케하시며여국은너에부모지국이라백성을어육
 하며연왕후티즈에화익이중되하시니글언도리어대잇시리오만고소인이요런
 하뒤역이라엇지살기를바라리오죽참하시니라이역등씨부인이노야후왕부인과
 초왕비충열부인과충열부인이며만고충신현하병선스랑하고모양하든스위초왕
 를영귀하게맛나며가용에칙디련페로셔너리시미눈물리구천에스못쳐도리여비
 척함을억제치못하더라백성이티평하고산청히안하시희호지치와순락지풍이강



호

상

몽

구연월과문무시절에지나지아니하시더라광음이여류하시야로부사등선하고초왕
 이초국에치민한지십년간에백성이승평하고병화불괴하시며풍이일괴하시니
 십남미를두었스니초왕비충열부인은삼자일녀를생하시니일자는강상셔명민공에
 후스를잇게하고좌상궁충열부인이일자는이녀를생하고우상궁숙열부인이일자는삼
 녀를생하시니봉성봉용성용이라다군주숙녀라황상으로서초왕에공덕과제장에
 공훈을불망하기위하시아괴린각을등문박게지으시고춘추제항하시고월당디
 사와백의선상에은혜를생각하시백운산과령은사에사신을보닉여엄폐하되그중
 적을아지못할지라영은사와백운사에종록을너리고사피를후이사급하사월당
 디사백의선성을춘추제사송덕하시고천이영은사에용예를임하사월당의
 에간곳을바라나다만청천만리에백운이점하시고만뇌구적흔디명월이만당이요
 청풍이진사한디백의편사이라셔남간으로백학일쌍이알년이길이올고표년이운
 소에을으니호상어부괴국십년에기암의살을놀닉여선창에의지하니오초난동남
 락이요건권은일야부라청풍은셔리하고수과는불괴하시야천과만경이호하랑하
 야공장천일벽이라무산십이봉에추풍이삼하하시야양루백척디에월색이명낭하
 야창연한회포자년이살란하시야듯척치며어부사일편구장을지여노리하시니그사에
 하시되

雪鬢漁翁 浦間 설빈어옹이포간에 머물어 씨니, 스사로 말하되 물에 거함이 산에 거함과 같나도

다, 비씨여라 早潮 도조가 계우 떠러 지리 만조가 오노도다, 지국총々어

스와하니, 비에의 지한어부한역기념도다 靑蒹葉 涼風 청호엽우에는 양풍이 일고, 홍요화

가에 난 배구조 白鷗 洞庭湖上 歸風 은노도다, 닛씨여라 洞庭湖上 歸風 동정호상에 귀풍을 명에 하얏도

다, 지국총々어스와하니, 닛씨급하미 전산이 홀년이 후산이로다, 盡日 진일도록

비를 띄여 연기속으로 가고, 有時 유시에 닛설 지여 달가운 터 들어가도다, 비져어라

々々々々, 야심수처의 스스 夜深隨處 로돌아가기를 이젓도다, 지국총々어스와하니,

叩柁乘流 定 고세승류에 증한곳이 읍도다, 萬事 만스가 한락 시씨에 무심하여 씨니, 三公不換此 삼공불환차

강산이로다, 一生踪跡 滄浪 닛지여라 山雨溪風 釣絲 산우계풍에 조스를 거뎛도다, 지국총々어

스와하니, 東風西日 楚江 일성종적이 창낭에 잇도다, 一片昔 동풍서일에 초강이 겁피 씨니, 일편티

機 萬柳陰 綠萍身世 白鷗 기계 만유음이로다, 이어라 綠萍身世 白鷗 록평신세가 백구에 마암이로다, 지국총

々어스와하니, 隔岸漁村 雨三家 濯纓歌 罷 釣船 격안어촌이 양삼가로다, 탁영가를 파하고 조선에 넘추워 씨

니, 竹逕柴扉 秦淮近 죽경시문을 오히려 열지 아니 하얏도다, 비져어라 秦淮近 밤에 전회근

주가로 디이다라, 酒家 臥久蓬底 獨寢時 醉來睡着 지국총々어스와하니, 와구몽저에 독침시로다, 취티수착

에 스름을 불음이 읍시니, 流下前灘 應當 유하전란을 응당아 지못하난도다, 비미여라 滿江風月 屬漁船 々々, 도화유수 鰕魚 썰어가 살지도다, 지국총々어스와하니, 만강풍월이 속어선

이라, 夜靜水寒 魚不食 空然 明月 야정수한에 어불식한대, 배에 가득기 공년이 명월만 실고 도라오도다,

배지여라 短篷 々々々々, 락시를 파하고 돌아 오미 단봉을 미엿도다, 지국총々어스

와하니, 風流未必西施歸 百塵間 上釣舟 世間名利 悠悠 풍유미필서시귀로다, 백진간에 상조주하니, 세간명리가 다 유々하

도다, 배부처라 去年 痕跡 々々々々, 배를 미나 오히려 거년에 흔적이 잇도다, 지국총々

어스와의니, 이니일성에 산수가 푸르도다
款乃一聲 山水

호상몽 종

湖 上 夢

不許複製 版權所有

大正十三年三月四日 印刷
大正十三年三月八日 發行

湖上夢上下合編 (定價金四拾錢)

京城府敦義洞一六九番地

著作人 孫 洙 根

京城府桂洞九十九番地

發行人 玄 公 廉

京城府安國洞三十五番地

印刷人 朴 旼 濬

京城府安國洞三十五地

印刷所 皇臺聖經及基督教書會印刷部

京城府敦義洞一六九番地

發行所 鳳 陽 書 院

京城府敦義洞一六九番地

發賣所 鳳陽書院營業部

臨江府志

卷之六

臨江府志卷之六
職官志
職官志一
職官志二
職官志三
職官志四
職官志五
職官志六
職官志七
職官志八
職官志九
職官志十
職官志十一
職官志十二
職官志十三
職官志十四
職官志十五
職官志十六
職官志十七
職官志十八
職官志十九
職官志二十
職官志二十一
職官志二十二
職官志二十三
職官志二十四
職官志二十五
職官志二十六
職官志二十七
職官志二十八
職官志二十九
職官志三十
職官志三十一
職官志三十二
職官志三十三
職官志三十四
職官志三十五
職官志三十六
職官志三十七
職官志三十八
職官志三十九
職官志四十
職官志四十一
職官志四十二
職官志四十三
職官志四十四
職官志四十五
職官志四十六
職官志四十七
職官志四十八
職官志四十九
職官志五十
職官志五十一
職官志五十二
職官志五十三
職官志五十四
職官志五十五
職官志五十六
職官志五十七
職官志五十八
職官志五十九
職官志六十
職官志六十一
職官志六十二
職官志六十三
職官志六十四
職官志六十五
職官志六十六
職官志六十七
職官志六十八
職官志六十九
職官志七十
職官志七十一
職官志七十二
職官志七十三
職官志七十四
職官志七十五
職官志七十六
職官志七十七
職官志七十八
職官志七十九
職官志八十
職官志八十一
職官志八十二
職官志八十三
職官志八十四
職官志八十五
職官志八十六
職官志八十七
職官志八十八
職官志八十九
職官志九十
職官志九十一
職官志九十二
職官志九十三
職官志九十四
職官志九十五
職官志九十六
職官志九十七
職官志九十八
職官志九十九
職官志一百